



# 중국의 플랫폼 기업과 국가의 관리에 관한 탐색적 연구\*

박우 한성대학교 기초교양학부 교수

본 연구는 중국의 국가-플랫폼 기업 관계의 특징을 탐색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플랫폼 기업이 중국의 발전을 상징하는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2020년부터 정부가 플랫폼 기업들에 적극적인 관리를 시작한 현상에 주목했다. 본 연구는 플랫폼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 어떤 문제를 내재 또는 유발했는지, 그리고 정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관리했는지에 대해 답해 보았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플랫폼 기업들이 사용자 확보 경쟁을 하는 과정에 시장 독점 문제가 부상했고 이에 대해 시장관리당국이 기존의 법과 신규 정책 제정을 통해 관리했다. 둘째, 플랫폼 기업은 기술기업이라는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금융상품을 개발 및 판매하였는데 이는 금융 리스크를 확대하고 동시에 국유은행 중심의 금융시장에 도전적인 것으로 보였다. 이에 대해 금융관리당국이 관리의 주체가 되었다. 동시에 정치적 및 행정적 권력을 이용한 권위주의적 관리 방식이 부각된 측면이 있다. 셋째, 플랫폼 기업이 수집한 데이터는 국가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로 인식되었고 이에 대해 인터넷관리당국이 기존의 법과 신규 정책 제정을 통해 관리했다.

주제어 중국 플랫폼 기업, 국가 관리, 반독점, 금융 서비스, 데이터 안보

## I. 들어가며

1990년대 초중반, 민간 영역에서 IT 기업이 출현했다. 중국정부는 실리콘밸리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베이징의 중관촌(中关村)을 대학, IT기업, 산학, 창업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산업단지로 만들었다. 1990년대는 또한 창장삼각주(상하이, 항저우, 난징 등), 주장삼각주(광저우, 선전 등) 등 지역에 자본이 집중되기 시작한 시기였다. 중관촌 모델은 아니지만 이 지역에도 IT기업들이 우후죽순처럼 출현했다.<sup>1</sup> 탈사회주의 경제개혁의 흐름에 힘입어 1998년 텐센트(Tencent), 1999

\* 본 연구는 2021년 (주)네이버가 후원하고 한국사회학회가 수행 중인 “코로나19 이후 플랫폼 사회의 변화: 적응, 갈등, 공감”의 일환으로 수행된 연구임을 밝힌다.

년 알리바바(Alibaba), 2000년 바이두(Baidu)가 중국의 핵심 경제3블록에 있는 선전, 항저우, 베이징에 설립되었다. 미국에 기축플랫폼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가 있다면 위의 기업들은 중국의 기축플랫폼 대명사인 BAT를 구성하는 기업이다.

1990년대 말, 중국인들은 펑귄 이모티콘으로 상징되는 텐센트의 OICQ/QQ를 통해 먼 곳의 지인과 연락할 수 있었고 만난 적 없는 사람들과 채팅하기 시작했다. 현재 텐센트의 위챗(WeChat)은 문자를 주고받는 것은 물론 친목도모나 정보교환에 있어 필수적인 인프라가 되었다. 중국인들은 전자상거래를 이용하여 물건을 사고파는 데 익숙해졌다. 스마트폰에 설치된 결제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지폐가 필요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 도시민들은 출퇴근 피크에 터치 몇 번을 통해 택시를 부를 수 있고, 휴식 시에는 전 세계의 영상 콘텐츠를 스트리밍으로 시청하고 있다. 일상화된 음식 배달이나 택배, 쿼서 서비스 등은 생활의 질과 작업의 효율성을 높여 주었다. 플랫폼은 중국인들의 필수적 인프라가 되었다.<sup>2</sup>

그런데 중국정부는 2020년부터 내로라하는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 적극적인 관리 정책을 펼쳤다. 중국 발전의 상징이면서 중국인의 일상의 많은 부분을 책임진 플랫폼 기업인데 국가는 왜 관리를 시작하게 되었을까?<sup>3</sup>

주지하다시피 중국 플랫폼 기업의 성장을 시장의 원리에만 기대어 설명할

<sup>1</sup> 본 연구에는 정부부처, 법, 정책, 은행명 등은 직역을 하였고, 인명, 지명, 기업명 등은 중국어 발음을 따랐다.

<sup>2</sup> 일부 연구자들은 중국 사회의 '플랫폼화'라는 표현으로 이 현상을 설명한다(Kloet et al., 2019). 북미와 유럽의 상황을 토대로 연구한 사회학자들은 '플랫폼 사회'라는 개념을 제안했고(Dijk et al., 2018: 2), 국내 연구자들도 2020년부터 본격 '플랫폼 사회' 현상에 주목했다(이재열 외, 2021; 한국사회학회, 2021). 연구자들 사이에서 '플랫폼 경제'라는 용어도 자주 등장하지만 본 연구는 '플랫폼 사회'의 시각에서 국가-기업 관계에 주목했다는 점을 밝힌다.

<sup>3</sup>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관리"는 거버넌스(governance)의 의미와 근접한다는 점을 밝힌다. 거버넌스는 보통 협치로 번역되는데 중국에서는 국가가 사회를 인도, 관리, 조정, 통제한다는 의미에서 치리(治理)라고 한다. 국가(또는 정부)의 기업치리라는 표현이 있지만 생소한 표현이어서 "관리"를 사용하였다. 국가의 플랫폼 기업에 대한 관리는 정부의 입장에서 플랫폼 기업의 전체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행위들을 포괄하는 의미다. 하지만 이러한 관리가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설명되어야 한다.

수 없다. 왜냐하면 기업은 다양한 정책, 산업, 문화 등의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정부는 1990년대부터 인터넷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공격적으로 광케이블을 설치했다. 그리고 다양한 정책을 통해 컴퓨터, 핸드폰 등의 전자, 통신 산업을 집중 육성했다. 또한 1990년대와 2000년대의 두 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판 뉴딜이라고 불리는 고속도로와 고속철도의 건설에 거액을 투자했다. 광케이블, 컴퓨터, 핸드폰, 고속도로, 고속철도 등 인프라는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필수적 요소였다. 여기에 더해 2000년대부터 정부는 자국 산업 보호라는 명분으로 방화벽 건설에 박차를 가했다. 2010년대 중반부터 일명 방화벽 만리장성(防火长城, Great Firewall)을 구축하여 중국인들이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위키피디아 등의 외국 플랫폼에 접근할 수 없게 했고 이 플랫폼들의 중국 진출에도 제도적 제한을 강화했다. 그 외에도 문화적으로, 비록 플랫폼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지만 정부가 강화한 애국주의와 민족주의는 기업의 성장에도 매우 중요한 결정요인 중 하나가 되었다. (과학)기술민족주의는 중국인들이 자국 기술과 기업의 제품을 선호하도록 하는 데 일조했다. 이렇게 중국정부는 플랫폼의 출현부터 성장까지 거의 모든 단계마다 직간접적으로 발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정부가 언제든지 기업의 운영과 작동에 개입할 정당성과 명분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다.

다른 한편, 플랫폼 기업이 시장의 특성을 파악하고 치열한 혁신을 통해 발전한 것 역시 많은 사람들이 아는 바다. 모든 사람들이 사장이 될 수 있다는 슬로건을 내건 알리바바의 타오바오는 남부 중국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는 지역 문화에서 배태되었고 동시에 이런 문화를 활용했다. 플랫폼 기업들은 중국에 신용카드 사용자가 많지 않고 시중에는 위조지폐가 많은 등의 문제를 알리페이, 위챗페이와 같은 제3자결제와 디지털화폐(지불수단) 개발의 필요성으로 생각했고 이런 개발 시도는 큰 성공으로 이어졌다. 플랫폼 기업들은 중국 역시 저출산과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고 도시에는 1인 가구가 증가한다는 변화를 파악했다. 나아가 이런 변화가 배달이나 택배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예측했다. 플랫폼 기업들은 또

한 중국에서 자가용이 상상 이상으로 급격하게 보급되면서 도시 대중교통의 발전이 지연된 현상을 발견했다. 플랫폼 기업들은 디디추싱 같은 중국판 우버를 통해 급증한 도시 인구와 부족한 대중교통 사이의 문제를 일정부분 해결했다. 플랫폼 기업들은 또한 제조업의 성장이 둔화하면서 양산된 도시 실업노동자들이 배달노동이나 택배노동 등 진입장벽이 낮은 분야에 진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시 실업문제 해결에도 기여했다. 또한 현재 플랫폼 기업은 20~30대 젊은 사람들에게 회사 취직이나 공무원 시험을 보는 것 못지않게 1인 방송 BJ인 왕홍(网红)으로 성공하는 것을 꿈꾸게 했다. 플랫폼 기업은 이렇게 사람들의 일상의 불편함을 해결하고 고용문제를 해결하고 경제활동의 기회를 확대시켜 주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국가-플랫폼 기업 관계는 다음과 같은 성격을 내재하고 있다. 플랫폼 기업은 중국의 사회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에 중국정부는 기업들의 순기능은 유지하고 대신 정부의 입장에서 문제라고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 연구는 국가-기업 관계의 맥락과 역동적 상호작용의 궤적에 주목한다. 기존 연구들은 중국과 플랫폼 기업을 등치시켜 디지털 영역에서의 세계 패권 경쟁의 양상을 서술하는 사례로 활용하거나(다나카, 2019; 윤재웅, 2020; 최필수 외, 2020) 중국의 기업가 정신 또는 경영 신화를 보여 주는 사례로 삼고 있다(클라크, 2018). 정부의 역할에 관심을 두는 연구도 있지만 관리가 본격화되기 전의 상황에 그치거나<sup>4</sup> 정부의 기업에 대한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노은영·국정훈, 2021).<sup>5</sup> 이 부분이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차별점이 되겠다.

본 연구는 2020년 상반기부터 2021년 11월 현재까지, 중국의 플랫폼 기업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을 받았던 알리바바와 디디추싱을 사례로 국가-플랫폼 기업의 관계를 설명해 보고자 한다. 상술한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의 하위 질문을 순차적으로 답할 것이다. 첫째, 플랫폼 기업은 성장하는

<sup>4</sup> 각주 1에서 언급한 중국사회의 '플랫폼화'와 관련된 논의를 참조하라. 한국 내 일각에서는 '기업 때리기'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중국정부의 행태에 우려하고 있다.

<sup>5</sup> 국내외 미디어는 중국 당국의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 공산당의 독재적 성격을 지나치게 드러내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과정에 어떤 문제를 내재 또는 유발했는가? 둘째, 정부의 관리 내용은 무엇인가? 셋째, 정부 당국의 관리 주체는 누구인가? 넷째, 정부는 어떤 조치를 통해 관리했는가?

## II. 플랫폼 기업의 시장 독점 문제와 국가의 관리

플랫폼 기업은 생산자, 판매자, 소비자 관계의 거의 모든 부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하위 플랫폼들을 통해 방대한 ‘생태 체계(ecosystem)’를 구성하고 있었다. 대표 플랫폼 기업인 알리바바와 텐센트의 생태 체계를 보도록 하자. 알리바바는 O2O서비스(12개), B2C서비스(10개), B2C전자상거래(14개)를 시작으로 금융(6개), 물류(8개), 미디어 및 오락(15개), SNS(3개), 마케팅(3개), 기술(19개) 등으로 구성된 생태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 생태 체계는 알리바바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설립한 플랫폼 102개로 구성되었다. 텐센트는 B2C서비스(7개), B2C 비즈니스(8개), O2O서비스(7개), SNS(4개), 게임(3개)을 중심으로 금융(9개), 물류(5개), 미디어 및 오락(10개), 기술(12개), 기타(5) 등의 70개의 플랫폼으로 생태 체계를 구성했다(Fung Business Intelligence, 2020: 8-9). 이 생태 체계는 플랫폼 기업이 온라인 공간에 펼쳐 놓은 거대한 시장과 다름없었다.

플랫폼 생태 체계를 통해 상품과 서비스의 교환의 효율성을 제고한 덕분에 플랫폼 기업들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 먼저 사용자 수를 보도록 하자. 그림 1을 보면, 2014년 텐센트의 채팅 프로그램 QQ의 사용자 수는 5.8억 명이었다. 2015년은 6.4억 명, 2018년에는 7억 명으로 증가했다. 2019년과 2020년은 6.5억 명과 5.9억 명으로 감소했지만 대신 텐센트의 다른 서비스인 위챗 사용자 수가 증가했다. 2014년 위챗 사용자수는 5억 명, 2015년은 7억 명, 2016년은 8.9억 명, 2017년은 9.9억 명, 2018년은 11억 명, 2019년은 11.6억 명, 2020년에는 12.3억 명이었다. 알리바바 사용자 규모도 선명한 상승곡선을 보여 주고 있다. 2015년 3.5억 명, 2016년 4.2억 명, 2017년 4.5억 명, 2018년 5.5억 명, 2019년 6.5억 명, 2020년 7.3억 명, 2021년은 8.1억 명이었다. 알리바바 플랫폼의 월 이용자는 같은 시기 2.9억 명, 4.1억 명, 5.1억 명, 6.2억 명, 7.2억 명, 8.5억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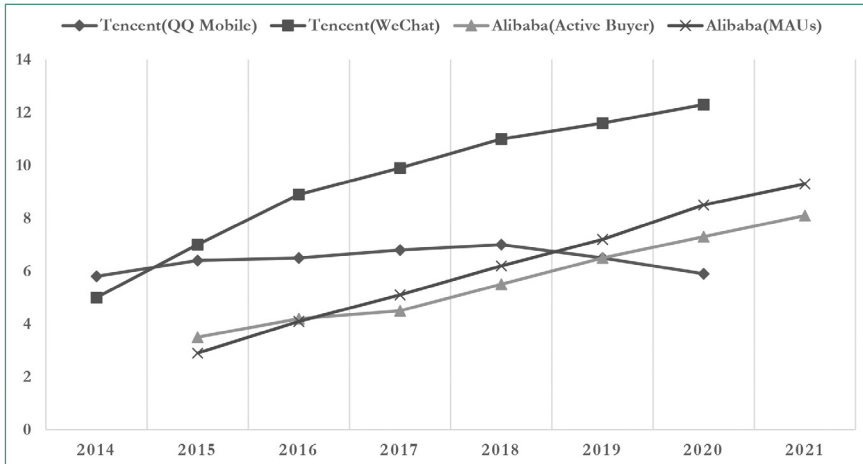


그림 1 텐센트, 알리바바 사용자(단위: 억 명)

출처: 텐센트(腾讯)와 알리바바(阿里巴巴) 홈페이지에서 필자 정리.

9.3억 명으로 증가했다. 2021년 기준 텐센트와 알리바바는 중국 인구에 근접하는 국내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사용자(고객)의 증가는 플랫폼의 매출 증가를 동반했다. 그림 2를 보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텐센트의 연매출은 789억 위안에서 4,820.6억 위안으로 증가했다.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알리바바의 연매출은 762억 위안에서 7,172.9억 위안으로 증가했다. 두 플랫폼 기업의 매출은 7년 사이에 각각 6배와 10배 증가했다. 플랫폼 기업의 약진을 부각하기 위해 같은 시기 국유기업(중앙, 지방)의 매출 증가율과 비교해 보았다. 그림 3을 보면, 텐센트는 2015~2020년 사이 연평균 20%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2016년과 2017년은 48%와 56%라는 기록적 증가를 보이기도 했다. 알리바바의 매출 역시 같은 시기 평균 30% 이상 증가했다. 2017년과 2018년에는 56%와 58%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두 플랫폼 기업의 약진과 대조적으로 중앙기업(국유기업)의 경우 2014~2020년의 증가율은 3.1%, -7.5%, 2.0%, 12.5%, 9.8%, 6.0%, -1.9%였고 지방국유기업은 5.5%, 2.3%, 3.5%, 15.2%, 10.4%, 8.2%, 7.5%였다. 물론 국유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플랫폼 기업에 비해 압도적으로 크기에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그림에도 플랫폼의 성장과 국유기업의 상대적 침체는 매우 대조적이고 뚜렷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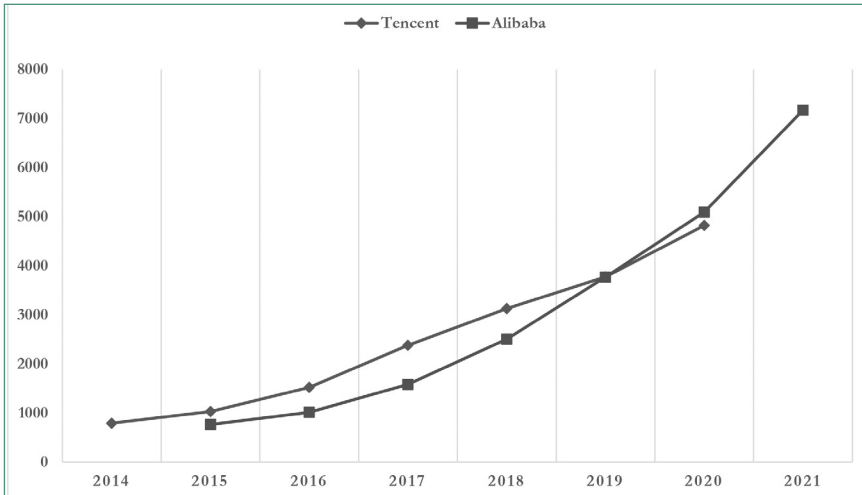


그림 2 텐센트, 알리바바의 매출(단위: 억 위안)

출처: 텐센트(腾讯)와 알리바바(阿里巴巴) 홈페이지에서 필자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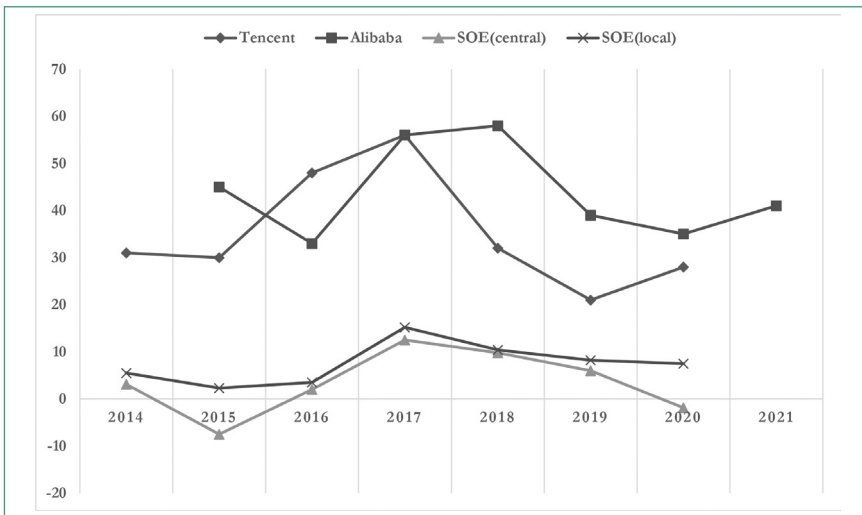


그림 3 텐센트, 알리바바, 국유기업의 매출 증가율

출처: 텐센트(腾讯), 알리바바(阿里巴巴), 국무원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国务院国有资产监督管理委员会) 홈페이지에서 필자 정리.

현상으로 보였다. 2020년의 코로나19 팬데믹하에서 텐센트와 알리바바는 모

두 매출의 증가율이 반등한 반면 국유기업은 모두 하락세를 이어 갔다.

기업의 속성이 성장이라면, 플랫폼 기업 역시 지속적으로 자신의 플랫폼을 매개한 사용자의 규모를 확대하고 매출을 늘려야 했다. 그런데 중국의 시장은 무한대로 확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제한된 시장에서의 고객 확보는 플랫폼 기업 사이의 경쟁을 내재하고 이 경쟁은 플랫폼 사이, 플랫폼과 지역상권 사이에 시장 독점 문제를 유발하게 되었다.

플랫폼 기업 사이의 경쟁과 독점 문제는 2010년대 초중반부터 불거졌다.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사례 3개만 보도록 하자. 첫 번째 사례는 2014년 텐센트와 치후(奇虎) 사이에서 발생한 일이다. 당시 텐센트는 자사 고객들에게 텐센트 플랫폼과 경쟁사 치후360 중에 하나만 사용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치후는 텐센트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선택강요(二选一))하여 고객들로 하여금 경쟁사의 플랫폼을 사용할 수 없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sup>6</sup> 치후는 텐센트를 시장관리당국에 고발했다. 두 번째 사례는 알리바바와 징둥(京东) 사이에서 발생한 일이다. 2015년, 알리바바 산하의 티몰(天貓)도 고객확보 차원에서 사용자들에게 자사 플랫폼과 경쟁업체인 징둥 사이에서 하나만 선택하라고 요구했다(선택강요). 징둥 역시 시장관리당국에 티몰을 고발했다. 세 번째 사례는 2019년의 전자상거래기업의 집단고소다. 이 집단고소는 징둥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근거로 알리바바를 고소한데서 시작되었다. 징둥에 이어 핀뎬뎬(拼多多), 웨이핀후이(唯品会)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들도 징둥의 편에 가세하여 알리바바를 고소하면서 일명 집단고소가 본격화되었다. 그런데 집단고소에 앞장선 징둥과 웨이핀후이의 주주가 텐센트였다는 점에서 사람들은 이 집단고소를 텐센트와 알리바바의 싸움으로 보았다(BBCNEWS中文 20/12/24).<sup>7</sup>

<sup>6</sup> ‘二选一’는 한국어로 양자택일로 사용되기도 한다. 두 개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뜻인데, 플랫폼 기업이 사용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자유롭게 선택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경쟁사 플랫폼을 이용하지 말고 자사 플랫폼만 이용하라고 ‘강요’한 측면이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양자택일’이라는 중립적 용어보다 “선택강요”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자 한다.

<sup>7</sup> 플랫폼 기업들 사이의 독점 문제는 선택강요 외에도 알고리즘 공모(算法共謀), 거래거부(拒絕交易), 끼워팔기(搭售), 차별대우(差別待遇) 등의 플랫폼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문제와 개인 정보 수집(不当收集用户数据), 빅데이터 기반의 차별(大数据杀熟), 필수시설(必需设施)로서 데이터의 공유 문제 등의 데이터에 기반한 잠재적 독점 문제도 있다(金杜律师事务所, 2020: 4-5).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지자 당국은 플랫폼 기업의 시장 독점 문제를 본격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기 시작했다. 2020년 11월 10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은 「플랫폼경제영역의반독점지침초안(이하 「플랫폼경제지침초안」, 关于平台经济领域的反垄断指南(征求意见稿))」을 발표했다(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 20/11/11). 이미 2007년에 「반독점법」이 제정되었지만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제도화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플랫폼경제지침초안」이 발표되자 알리바바, 징둥, 텐센트, 샤오미, 메이뽕 등의 플랫폼들은 주가가 폭락, 약 2,00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BBCNEWS中文 20/11/11; BBCNEWS中文 20/11/12). 12월 14일에는 알리바바, 텐센트 산하 웨이그룹, 평차오 네트워크 등 기업이 「반독점법」에 의해 행정처벌을 받았다(각 벌금 50만 위안)(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 20/12/14).

플랫폼 기업의 고객확보 경쟁은 플랫폼 기업 사이의 독점문제뿐만 아니라 골목상권을 파괴하는 등 시장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 되었던 2020년의 일이었다. 도시민들은 공공장소 방문과 대중시설 이용 횟수를 줄이기 위해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생필품 단체구매를 시작했다. 2020년 하반기부터는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와 물리적 봉쇄도 완화되었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단체구매를 이어 갔다. 이러한 소비패턴을 신규 시장이라고 판단한 플랫폼 기업들은 거액을 투자하여 단체구매시장에 뛰어 들었다. 알리바바, 텐센트, 징둥, 메이뽕, 핀뉘뉘, 디디 등의 플랫폼들이 앞장섰다. 이들은 적자를 기록하더라도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점령했다. 평균 한 개 플랫폼 기업이 한 개 성(省)에서 3,000~4,000만 위안을 손해 보았다. 보조금이 적용되면서 채소나 육류 등의 식품 중에 한 근(500g)에 0.9위안(180원), 심지어 한 근에 0.1위안인 상품도 등장했다. 플랫폼 기업의 단체구매시장 진출은 도시민의 생활에 편의를 제공한 것은 맞지만 거대 플랫폼 기업의 등장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골목상권은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 2020년 중반까지 주택가 인근의 채소가게, 상점 등은 코로나19로 모두 폐업을 했거나 휴업 중이었다. 도시 봉쇄가 완화되고 사람들의 일상이 회

본 연구는 2020년 알리바바 사례에 주안점을 두었기에 선택강요만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복되면서 자영업자들도 사업을 재개할 수 있을 듯 싶었지만 플랫폼 기업들이 보조금을 지급하면서까지 이 시장을 점령하면서 자영업자들은 아예 가게 문을 닫거나 장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게 되었다. 2020년 12월 22일, 정부는 이런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단체구매시장에 뛰어든 상술한 기업들에 행정지도(명령)를 내렸다(BBCNEWS中文 20/12/29).

국무원반독점위원회(国务院反垄断委员会)는 2021년 2월 7일, 2020년에 공표한 「플랫폼경제지침초안」을 수정하여 「플랫폼경제영역에서의반독점지침(关于平台经济领域的反垄断指南)」(이하 「플랫폼경제지침」) 최종안을 공개했다. 총 6장, 24조로 구성된 최종안은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뿐만 아니라 독점 협의(계약), 경영자의 집중, 행정 권력의 남용을 통한 경쟁 배제와 제한 등의 문제를 포함했다(国务院反垄断委员会 21/02/07).<sup>8</sup>

「플랫폼경제지침」은 공표 직후 논쟁에 휘말렸다. 「플랫폼경제지침초안」에 있었던 “플랫폼 경제”의 정의를 삭제했기 때문이었다. 최종안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플랫폼 경제”의 정의가 없으면 플랫폼 기업의 독점을 입증할 수 없다는 점, 결국 플랫폼 기업에 유리한 정책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최종안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비록 내용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큰 틀에서 플랫폼 기업의 독점을 규제한다는 취지가 변하지 않았고, 내용이나 정의가 애매하다면 그것은 오히려 정부의 개입 가능성을 확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최종안 찬성 측은 플랫폼에 대한 규제와 관리는 플랫폼의 혁신과 발전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기에 최종안 내용이 애매한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았다(BBCNEWS中文 21/02/10).

중국정부는 플랫폼 기업의 반독점 문제에 대한 관리를 지속했다. 2021년 3월 12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반독점법」에 근거하여 인타이(銀泰), 텐센트, 청두메이경메이(成都美更美), 쑤치엔한방(宿迁涵邦), 바이두, 쑤닝(苏宁), 디디(滴

<sup>8</sup> 같은 날, 국무원반독점위원회는 시행을 앞둔 「플랫폼경제지침」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어, 지침의 배경, 원칙, 플랫폼 경제의 독점과 전통 산업의 독점의 차이, 플랫폼 경제 영역과 전통 산업의 시장 지배적 지위의 차이 등에 대해 설명했다(国务院反垄断委员会 21/02/07). 2월 8일에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지침의 내용을 요약 및 이미지화하여 공개했다(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 21/02/08). 각주 7에서 언급한 내용 모두 이 지침에 포함되었다.

滴), 하오웨이라이(好未来), 베이징뉴카푸(北京牛卡福) 등이 인수합병 과정의 “경영자 집중” 문제에 대해 각 50만 위안의 벌금형을 내렸다(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 20/03/12). 이후 텐센트의 마화팅도 반독점당국에 소환되었고 100만 위안 정도의 벌금형을 받을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路透社 21/03/24).

「플랫폼경제지침」 제정 이후 첫 실형을 받은 기업은 알리바바였다. 2020년 12월 24일에 조사가 시작되어(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 20/12/24) 약 4개월 뒤인 2021년 4월 10일, 당국은 알리바바의 “선택강요”를 문제 삼고 182.28억 위안의(27.8억 달러) 벌금형을 결정했다(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 21/04/10). 「반독점법」 제정 이래 최고 벌금액이었다. 알리바바의 벌금 직후,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중앙인터넷정보판공실(中央网信办), 국가세무총국(国家税务总局)이 연합하여 플랫폼 기업에 대한 행정지도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당국은 플랫폼 기업의 발전 추세는 매우 좋지만 리스크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누적되었다고 했다. 당국은 특별히 플랫폼 기업들의 독점 이슈를 거론하면서 회의 개최 날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플랫폼 기업들이 전면적인 자기검토를 실시할 것, 회의에서 지적한 내용과 부합하는 것이 있으면 철저하게 바로 잡을 것, ‘합법경영서약서(依法合规经营承诺)’를 공개하여 사회로부터 감독을 받을 것을 요구했다. 당국은 플랫폼 기업에 대한 추적 조사를 실시할 것이고 서약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독점 행태가 보일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했다(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中央网信办·国家税务总局 21/04/13). 이 회의에 소환되어 경고를 받은 기업은 BAT 생태 체계의 구성원이거나 BAT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설립한 플랫폼 기업들이었다(표 1 참조).<sup>9</sup> 기업들은 일제히 회의 당일인 4월 13일에 서약서를 제출했고, 당국은 4월 14일, 15일, 16일에 서약서를 3개 그룹으로 나누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 21/04/14; 21/04/15; 21/04/16). 회의 직후,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메이뽀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시작했다(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 21/04/26).

<sup>9</sup> 중국의 스타트업 기업의 80%가 BAT의 투자를 받아 설립되었듯이 신규 플랫폼 기업의 성장과 기축플랫폼을 분리하여 설명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The Economist(2018)과 Yoon(2021)을 참조하라.

표 1 주요 플랫폼 기업 개관

로고	회사명	설립	주요 서비스	본부	로고	회사명	설립	주요 서비스	본부
	아이치이 爱奇艺	2010	스트리밍	베이징		귀베이 国美	1987/2020	가전제품	홍콩
	바이두 百度	2000	검색	베이징		허마성시엔 盒马生鲜	2017	전자상거래	항저우
	베이커 贝壳找房	2018	주거	톈진		핀뉘뉘 拼多多	2015	전자상거래	상하이
	디디 滴滴	2012	택시	베이징		시에칭 携程	1999	여행	상하이
	당당왕 当当网	1999	전자상거래	베이징		샤오홍수 小红书	2013	SNS	상하이
	뉘디엔 多点	2015	전자상거래	베이징		위에윈 阅文	2015	문학작품	홍콩, 상하이
	징둥 京东	2013	전자상거래	베이징		쑤닝이커우 苏宁易购	1999/2011	전자상거래	난징
	콰이서우 快手	2011	동영상	베이징		아리 阿里	1999	전자상거래	항저우
	메이판 美团	2010	배달	베이징		베이베이왕 贝贝网	2014	전자상거래	항저우
	메이르유시엔 每日优鲜	2014	전자상거래	베이징		빌리빌리 哔哩哔哩	2009	영상	상하이
	치후선류링 奇虎360	2005	소프트웨어	베이징		딩둥마이차이 叮咚买菜	2017	전자상거래	상하이
	취날왕 去哪儿网	2005	여행	베이징		어러머 饿了么	2009	배달	상하이
	썬우거우 搜狗搜索	2004	검색	베이징		뉘구지에 蘑菇街	2011	전자상거래	항저우
	웨이디엔 微店	2013	전자상거래	베이징		왕이(엔쉬엔) 网易(严选)	2015	전자상거래	항저우
	우빠퉁칭 58同城	2005	일상정보	베이징		윈지 云集	2018	전자상거래	항저우
	쥬안웨이보 新浪微博	2010	SNS	베이징		웨이핀후이 唯品会	2008	전자상거래	광저우
	쯔지에타우둥 字节跳动	2012	영상	베이징		탕선 腾讯	1998	SNS	선전

출처: 각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필자 정리

### III. 플랫폼 기업의 금융 서비스와 국가의 관리

민간기업의 금융 서비스는 태생 자체가 이슈였다. 알리바바가 알리페이(엔트그룹)를 출시하자 바로 정부의 견제가 시작된 것은 관련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아는 일이다. 알리바바의 대주주가 소프트뱅크와 야후였다는 사실, 즉 외국인자본이 중국의 제3자결제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부정

적 인식이 컸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당시(2011년) 마윈은 알리페이를 알리바바에서 분리하는 초강수를 두면서 제3자결제 허가를 따냈다. 마윈은 국가가 필요하다고 하면 알리페이를 언제든지 국가에 헌납하겠다고 말하기까지 했다(BBCNEWS中文 19/09/09). 앤트그룹은 설립된 지 10년도 안 되어 시가 1,500억 달러를 돌파했다(2020년 기준). 이러한 기세에 힘입어 2020년에 상하이와 홍콩에 동시 상장을 준비했지만 상장 직전 금융당국에 의해 긴급 중단되었다. 앤트그룹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2016년 12월, 홍콩의 한 특강에서 마윈은 당시 유행하고 있던 핀테크(Fintech)를 언급하면서 알리페이는 핀테크와 대조적인 테크핀(Techfin)이라고 했다.<sup>10</sup> 그는 핀테크는 기존 금융시스템의 자기 혁신에 불과하지만 테크핀은 과학기술을 통한 전체 업종에 대한 구조적인 변화라고 했다. 알리바바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테크핀의 정의를 설파했다. 2017년 3월, 알리바바와 앤트그룹은 중국건설은행과 협약을 체결했다.<sup>11</sup> 중국건설은행장은 알리바바 및 앤트그룹이 전통적 금융에 인터넷 방식의 사유와 해결 방안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 이는 건설은행의 혁신과 발전을 추동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도 앤트그룹은 자신을 테크핀 기업이라고 정의하면서 자신의 기술과 데이터로 금융기관을 조력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테크핀으로서 앤트그룹은 서비스를 받지 못한 80%의 사람들, 즉 일반 소비자와 소기업을 위해 서비스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욱 평등하고 호혜적이고 투명하고 개방적인 신금융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亿欧·张书乐, 2017).

국유은행과 플랫폼의 협력은 일종의 “동상이몽”이 아니었을까? 전통금융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술의 도입과 기술에 기반한 플랫폼 기업의 금융업 진출은 시작부터 긴장을 내재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핀테크든 테크핀이든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다를 바 없었기 때문이다. 비록 앤트그룹은 자신은 테크(기술기업)이지 핀(금융기업)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앤트그룹을 금융회사로 보

<sup>10</sup>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e)의 fin과 기술(technology)의 tech를 합성한 것이다.

<sup>11</sup> 6월에는 징둥과 중국공상은행, 바이두와 농업은행, 텡신은 중국은행과 화화은행과 동시에 협약을 체결했다.

고 싶어 하는 주류의 시각은 지속적으로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각은 앵트그룹이 자초한 측면도 있었다. 은퇴선언을 앞둔 마윈은 은행이 변하지 않으면 자신의 기업이 은행을 변화시키겠다고 했는데 이 말을 두고 결국 앵트그룹은 금융업에 진출하여 기존의 제도권 은행에 도전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던 것이다. 이 말에 대해 마윈은 다시 한 번 앵트그룹이 추구하는 것은 테크핀이지 핀테크가 아니라고 했고 자신은 전통금융기관, 즉 국유은행의 명을 자르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기도 했다(互金商业评论, 2018).

테크핀에 대한 마윈의 해석을 계속 보도록 하자. 2018년 9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과학기술부, 공업정보화부, 국가인터넷정보관공실, 국가과학원, 국가공정원, 상하이시정부가 공동으로 ‘2018세계인공지능대회(2018世界人工智能大会)’를 개최했다. 이 대회 역시 마윈의 입에 주목했다. 미래는 데이터가 생산수단, 계산이 생산력, 인터넷이 생산관계가 될 것이라고 말문을 연 마윈은 스마트(지능) 시대는 바로 이러한 변화에 토대할 것이고 나아가 거대한 사회변혁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미래의 제조업은 제조업에만 한정되지 않고 제조업과 데이터, 즉 서비스업과의 완벽한 결합의 형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업의 중요성을 역설한 후 마윈은 다시 한 번 핀테크와 테크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현재 세계적으로 핀테크가 유행하고 있지만 우리의 것은 테크핀이라고 부른다. 핀테크는 전통 금융을 더욱 강대하게 하지만 테크핀은 모든 사람, 필요한 사람들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디지털 시대 금융 리스크 관리는 은행에 방탄조끼를 입혀 주는 방식이 아니라 데이터 기술로 리스크를 예측하고 제거하는 방식으로 한다. 나쁜 사람을 쫓아가서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을 미리 예측하고 발견해야 한다. 이는 (기존의) 리스크 사상을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동시에 이는 미래의 새로운 금융으로서 더 많은 사람들이 수혜자가 될 수 있게 한다. IT로 20%의 사람들이 수혜를 보았다면 디지털전환(DT)과 인공지능(AI) 시대의 데이터 기술은 80%의 사람들이 수혜를 보게 한다. 이것이 바로 이 세계의 미래가 가지고 있는 기회다.”라고 했다(高科技网, 2018).

이런 의미에서 앞에서 언급했던 앵트그룹의 상장은 거대 테크핀을 출범하는 동시에 알리바바라는 “제국”적 플랫폼 생태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었다. 2020년 8월, 앤트그룹 IPO는 300억 달러 규모가 될 것이라고 예측되었고 상장 직전의 시가총액은 약 2,000억 달러로 추정되었다(BBCNEWS中文 20/10/28).<sup>12</sup> 앤트그룹과 알리바바의 차이라면 마윈의 역할 차이였다. 알리바바의 대주주는 소프트뱅크와 야후였고 마윈과 핵심 관리자층의 지분은 모두 합쳐 10%가 안 되었다(BBCNEWS中文 20/08/31). 하지만 마윈은 앤트그룹의 8.8% 지분을 보유, 그리고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50.5177%의 지분을 통제할 수 있었다. 이는 마윈이 앤트그룹에 대한 절대적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 앤트그룹은 상장 이후 제3자결제 외에 기존의 서비스였던 소액대출, 재테크, 보험 등의 다양한 금융상품을 큰 폭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상장을 위해 변경된 회사명은 오히려 금융의 성격을 지우고 기술 성격을 강조하고 있었다. 앤트그룹의 이름은 ‘저장마이소미금융서비스그룹주식유한회사(浙江蚂蚁小微金融服务集团股份有限公司)’였는데 상장 시에는 ‘마이과기집단주식유한회사(蚂蚁科技集团股份有限公司)’로 정했다. 저장이라는 지명과 소미금융서비스가 삭제되고 대신 과학기술이 등장한 것이다(BBCNEWS中文 20/08/31). 앤트그룹이 테크핀인가 핀테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볼 수 있었다. 즉 앤트그룹은 테크이지 핀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기술플랫폼이라고 주장하면 정부 당국은 그대로 받아들일까?

2020년 11월 2일, 상장을 앞둔 앤트그룹의 핵심들인 마윈, 징시엔둥(井贤栋), 후샤오밍(胡晓明) 등은 동시에 중국인민은행(中国人民银行),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中国银保监会),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中国证监会), 국가외환관리국(国家外汇管理局) 등 금융기관에 소환되었다. 이들의 소환에 대해 여론은 다시 마윈의 입에 주목했고 그가 했던 말을 되짚어 보았다. 결정적 사단은 2020년 10월 24일, 상하이에서 열린 금융포럼에서 마윈이 던진 말에서 시작되었다는 게 중론이다. 국가부주석 왕치산이 영상으로 개회사 겸 축사를 할 만큼 중요한 행사였다. 왕치산은 축사에서 실물을 떠난 금융은 무의미하다고 하면서 중국의 금융은 투기도박과 같은 비뚤어진 길을 가면 안 되고, 금융거품이라는 자기 순

<sup>12</sup> 2019년 12월 294억 달러의 IPO를 기록한 사우디아라비아석유회사(Saudi Arabian Oil Company)를 초과한 사상 최고치였다.

환의 이상한 길도 가면 안 되고, 폰지사기와 같은 나쁜 길을 가셔도 안 된다고 했다. 또한 그는 현재 중국에서 새로운 금융상품이 끊임없이 출현하면서 효율성이 제고되고 편리함도 증대되었지만 동시에 금융 리스크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중국은 체계적(系統性) 금융 리스크가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는 마지노선(底線)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BBCNEWS中文 20/11/04; 大家说, 2020). 왕치산은 중국의 은행과 금융 분야 관료 출신으로서 중국 사회가 안고 있는 금융 리스크를 주의 및 경고한 것이다.

하지만 바로 이어진 발표에서 마윈은 “중국에는 체계적 금융 리스크가 없다. 그 이유는 중국의 금융은 체계 자체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 중국의 금융은 “전당포 사상”이라고 폄하하고, ‘바젤협약’을 노인클럽이라고 하면서 좋은 혁신은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지 않고 거꾸로 가장 무서운 것은 낡은 방식으로 이 혁신의 결과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이라고 했다. 마윈은 “우리는 금융에 대한 전당포 사상을 버려야 한다. 우리는 기술의 힘을 빌려, 빅데이터에 기초한 신용체계를 구축하여 기존의 전당포 사상을 대체해야 한다. 이 신용체계는 기존의 IT와 지인에 기초한 사회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빅데이터에 기초해야만 신용을 재부로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전당포 사상”은 전통적 의미에서의 금융, 즉 저당 또는 담보가 있어야 대출할 수 있는 제도(핀테크), 디지털 금융은 빅데이터에 근거하여 개인의 신용을 평가한 후 대출해 주는 제도(테크핀)로 이해되었다. 마윈은 기존의 전당포 사상이 “여러 기업가를 망하게 했다”고 했다(BBCNEWS中文 20/11/03; 大佬时光, 2020). 이 말은 중국의 플랫폼 기업이 혁신과 발전의 최전방에 있지만 정부의 낡은 방식이 발전의 발목을 잡는다는 뜻으로 풀이되었고, 더 중요한 것은 국가 부주석의 말을 즉각 부정, 반박한 노골적인 “정치적 발언”으로 해석되었다. 그렇다면 마윈의 앗트그룹은 어떤 금융상품을 판매하였기에 국가 부주석이 측사에서까지 금융 리스크에 대해 경고했을까?

앗트그룹의 매출을 크게 견인한 것은 알리페이(제3자결제시스템)를 통한 수수료 매출과 지에베이(借呗)와 화베이(花呗)가 개인과 소상공인에 판매한 대출상품이었다. 앗트그룹은 자산유동화증권을 개발하여 대출과 용자를 순환적으로 반복했다. 지에베이와 화베이는 충칭에서 설립되었는데, 당시 회사의 설립을



허가한 충칭시 시장 황치판(黄奇帆)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앤트그룹이 약 40여 회의 순환을 통해 30여 억 위안의 자본금으로 3,000여 억 위안을 대출해 졌다고 했다.<sup>13</sup> 앤트그룹은 자신의 자본금이 거의 없이 고액의 수익을 기록한 것이었다. 왕치산의 측사 전에 이미 중국정부는 이런 금융상품이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하여 앤트그룹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일 것을 요구했고, 동시에 대출상품을 판매하려면 국유은행과 공동으로 판매할 것을 요구한 상황이었다. 이 부분이 바로 왕치산이 말한 체계적 금융 리스크의 한 부분이었다.<sup>14</sup> 여기에 추가로 2010년에 개정된 “바젤협약”, 즉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위험가중자산 중 자기자본의 비율 인상을 골자로 한 이 협약을 비난했으니 중국 당국이 마윈과 산하 기업의 금융 서비스에 대해 본격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면 이상할 정도였다. 앤트그룹의 상장 중단이 시진핑 주석이 직접 지시한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마윈의 발언은 파급력이 컸다(Yang and Wei, 2020).

마윈의 발언 1주 뒤, 2020년 10월 말, 국무원금융안정발전위원회(国务院金融稳定发展委员会)는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금융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들의 금융과학기술과 금융혁신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법에 근거하여 모든 금융활동을 정부의 관리와 감독의 범위에 넣을 것이라고 했다. 같은 날, 중앙은행 산하 중국금융신문은 가명의 전문가 이름으로 글을 게재하여 정부의 관리 및 감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글에 의하면 일부 거대 기술기업들은 금융과 관련된 심사를 받지 않고 설립되었다고 비판하면서 앤트그룹을 지목하여 은행과 유사한 예금과 대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심사,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张非鱼, 2020).<sup>15</sup> 11월 2일, 중국은행보험감독위원회는 당위원회 확대회의를 개최하여 모든 금융활동을 관리감독의 범위에 넣겠다고 했다. 같은 날 저녁, 마윈은 당국에 소환되었다(BBCNEWS中文

<sup>13</sup> 이 부분은 珍妮(2020), 特伦哥(2020) 등을 참조하라.

<sup>14</sup> 마윈은 월가에서 개발된 자산유동화증권, 주택저당증권, 부채담보부증권, 신용부도스와프 등 매우 복잡한 수준의 금융 상품이 있어야 금융 체계가 있다고 보는 게 아닐까 하는 사람들의 추측도 있었다.

<sup>15</sup> 이 글의 저자인 장페이위(张非鱼)는 자칭 시니어학자(资深学者)라고 했지만 인터넷 상에는 이 사람에 관한 어떠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가명으로 활동하는 중국의 금융관리당국을 대변하여 목소리를 내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早报 20/11/3).

20/11/03).

이튿날인 11월 3일, 중국은행보험감독위원회와 중국인민은행은 「인터넷소액대출업무관리방법초안(网络小额贷款业务管理暂行办法(征求意见稿))」을 발표했다. 엔트그룹의 금융상품이 관리 대상으로 지목되었다(中国银保监会·中国人民银行, 2020). 같은 날, 상하이증권거래소는 엔트그룹의 상하이 상장을 잠정 중단한다는 공지를 엔트그룹에 전달했다. 직후 엔트그룹은 홍콩 상장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12월 11일, 중공중앙정치국은 반독점 강화와 자본의 무질서한 팽창을 막을 것을 강조했고, 15일에는 중앙은행금융안정국(中国人民银行金融稳定局) 국장 순티엔치(孙天琦)가 인터넷 플랫폼의 예금상품을 '무면허 운전'과 같은 불법금융활동이라고 했다(潘福达, 2020). 3일 뒤, 엔트그룹, 징둥, 루진(陆金) 등은 선후로 예금상품을 플랫폼에서 지웠다. 중국은행보험감독위원회 주식 귀수청(郭树清)이 인터넷 금융기관의 신용대출상품이 과잉 소비를 유도함으로써 일련의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고 하자 엔트그룹은 즉각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대출 한도를 줄이면서 이성적인 소비를 할 것을 호소했다(BBCNEWS中文, 20/12/29).

그렇다면 가장 문제시되었던 화베이와 지에베이는 어떻게 되었을까? 2021년 4월 12일, 엔트그룹의 핵심들은 다시 한 번 금융 당국에 소환되어 금융상품에 대한 조정 상황을 점검받고 앞으로의 관리 절차를 통보 받았다.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된 이슈는 단연 금융상품과 관련된 부분이었다. 당국은 화베이와 지에베이를 알리바바에서 분리한다고 했다(中国人民银行 21/04/12). 6월 3일, 충칭시는 충칭마이소비금융유한회사(重庆蚂蚁消费金融有限公司)를 설립하여 기존 화베이와 지에베이의 서비스를 인계 받았다. 이 회사는 총 80억 위안의 자본금으로 설립, 엔트그룹이 50%, 기타 6개 기업이 나머지 50%를 투자했다. 당국은 회사 설립 이후 금융상품들은 더 이상 화베이와 지에베이의 이름으로 판매되지 않을 것, 나아가 1년 뒤 이 두 회사는 시장에서 퇴출된다고 했다(重庆银保监局 21/06/03). 5월 말, 상하이증권거래소는 엔트그룹의 자산유동화증권 거래를 중단했다(路透社 21/06/03).

#### IV.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안보 문제와 국가의 관리

택시업계 1위인 디디추싱은 2021년 6월 10일에 미국 상장 계획을 발표했다. 디디추싱은 최근 실적이 매우 우수하고 아시아 최대의 기술투자회사인 소프트뱅크와 중국의 기층플랫폼인 알리바바, 텐센트 등의 투자를 받은 회사였기에(路透社 21/06/11) 업계에서는 디디추싱의 상장이 관련 분야 플랫폼 기업의 신기록을 세울 것이라고 전망했다(Driebusch, 2021). 상장 계획 발표 약 3주 뒤인 6월 30일, 디디추싱은 예상보다 빨리 미국에서 상장했다(路透社 21/07/01).

하지만 상장 직후인 7월 2일, 국가인터넷안전심사판공실은 인터넷 안보를 이유로 디디추싱에 대한 심사를 시작한다고 공고했다. 당국은 국가의 데이터안보위협방지, 국가안전보호, 공공이익보장 등을 위해 「국가안전법(国家安全法)」, 「인터넷안전법(网络安全法)」, 「인터넷안전심사방법(网络安全审查办法)」 등에 근거하여 심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동시에 심사 기간에는 위험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회원가입을 중단한다고 했다(国家网络安全审查办公室 21/07/02).

당국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이틀 뒤인 7월 4일,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디디추싱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했다고 하면서 「인터넷안전법」에 근거하여 디디추싱 APP을 삭제한다고 공고했다. 또한 당국은 디디추싱이 법과 규정에 근거하여 이 엄중한 불법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 21/07/04). 디디추싱은 즉각 신규 회원 가입을 중단했고, APP을 모두 삭제, 그리고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했다(滴滴出行官方微博 21/07/04.).<sup>16</sup> 디디추싱에 대한 관리가 개인정보, 국가안보 등과 연결되면서 이 기업이 중국에서 수집한 교통 데이터를 미국에 넘기려다가 적발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성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디디추싱은 중국에서 수집한 데이터는 전부 중국의 서버에 있고 데이터를 미국에 제공할 가능성이 전무하다고 했다. 나아가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사람을 고소하겠다고 했다(滴滴出行官方微博 21/07/03).

그렇다면 디디추싱은 어떤 측면에서 국가안보를 위협했을까? 2021년 7월 5

<sup>16</sup> 기존 사용자와 회원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

일을 전후로 과학기술 콘텐츠를 다루는 메이저 포털과 SNS 상에는 2015년 디디추싱연구원이 제작한 보고서가 (갑자기) 유통되었다. 이 보고서는 여름철 기온이 가장 높았던 날, 중국의 공안부, 감찰부, 외교부, 민정부, 사법부, 재정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국토자원부, 환경보호부, 주택도시건설부, 교통운수부, 수리부, 농업부, 상무부, 문화부, 위생계획생육위원회, 인민은행, 심계서, 중앙기율감독위원회 등 거의 모든 중앙정부 부처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 각 부서에서 출발한 택시 규모, 각 부서에 도착한 택시 규모 등에 관한 데이터를 기록했다. 당시 보고서는 관영매체인 신화사(新华社)와 공동으로 발표된 것인데다가 국가안보는 물론 아무런 문제제기도 없었던 보고서였다(新浪科技 21/07/05). 하지만 국가안보의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보고서 내용은 디디추싱이 일반인뿐만 아니라 국가 고위공직자의 행적을 시간대, 출발지, 목적지별로 매우 상세하게 수집했다는 것을 알려 주었다. 디디추싱을 이용해 본 사람은 모두 알듯이 2018년 택시 기사에 의한 승객 피살 사건 이후 실명 인증부터 시작하여 사용자(기사, 고객) 정보를 매우 자세히 등록해야 했다. 2021년에 보고서를 본 사람들은 정부가 급하게 안보 이슈로 관리를 시작한 이유가 이해되었다는 분위기였다.

교통 데이터와 관련된 문제는 디디추싱이 처음 만든 게 아니었다. 2020년, 테슬라 자동차가 사용자, 도로, 교통 등의 정보를 미국에 전송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 문제가 대두된 이유는 테슬라가 중국에 데이터 저장용 센터를 건설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되었다. 테슬라는 2021년 5월에 중국데이터센터가 건설되었고 중국 사용자의 정보를 모두 이 센터에 저장하고 있다고 했다(路透社 21/05/26). 테슬라 문제를 염두에 두고 중국의 인터넷 당국은 5월 12일에 「자동차데이터안전관리규정초안(汽车数据安全管理办法征求意见稿)」을 공표하여 자동차가 수집한 데이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했다. 이 데이터에는 ① 군사관리구역, 국방과학 등 국가기밀기관, 현급 이상 당-정부관공서 등 민감한 지역의 사람과 자동차 관련 데이터, ② 국가공인지도의 정밀측정데이터, ③ 자동차충전망 데이터, ④ 도로 주행 중인 차량 유형, 차량 규모 등 데이터, ⑤ 사람 얼굴, 목소리, 자동차번호 등과 관련된 음성 및 동영상 데이터, ⑥ 국가기관에서 정한 국가안보와 공익에 영향을 주는 기타 데이터 등이 포함되었다(国家互联

网信息办公室 21/05/12). 인터넷안보당국뿐만 아니라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도 「스마트인터넷자동차생산기업및제품에대한지침초안(智能网联汽车生产企业及产品准入管理指南(征求意见稿))」을 공표하여 데이터 안보에 대한 규정을 만들었다(工业和信息化部装备工业一司 21/04/07).

이런 상황에서 방대한 교통 데이터를 보유한 디디추싱이 3주 만에 미국에서 상장을 했으니 당국이 급하게 관리를 시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인터넷안보당국은 상장 몇 주 전에 데이터 안보 심사를 이유로 디디추싱이 미국 상장을 늦출 것을 건의했다고 한다. 디디추싱이 당국의 심사를 받았는지, 그리고 자체 심사를 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상장 직후 당국의 관리는 바로 이러한 건의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일 수 있다(Wei and Zhai, 2021). 두 번째는, 당국이 디디추싱의 미국 상장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아예 미국에서 상장하지 말 것을 희망하기도 했다고 한다. 미국 상장을 준비 중인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도 다방면으로 설득하던 중에 디디추싱이 상장을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상장 시점이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 행사날인 7월 1일 직전이었다는 것이 더 문제였다. 미국과 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힘겨루기를 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체면을 심각하게 구기는 일이었다. 이 일로 인해 고위층 인사들이 “격노”했다고 한다(小山, 2021).

디디추싱은 현재 미국의 투자자들로부터 집단소송에 직면하기도 했다. 미국의 한 변호사사무소(Rosen Law Firm)는 디디추싱이 심각하게 왜곡된 상업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자들에 손실을 입혔다고 하면서 집단소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简夏泽, 2021). 사람들의 이목이 디디추싱에 집중되었을 때 인터넷안보당국은 원만만(运满满), 휘처방(货车帮), 보스(BOSS直聘) 등의 3개 업체에 대해서도 심사를 시작한다고 공표했다. 당국은 이 3개 기업에 대해서도 「국가안전법」, 「국가인터넷안전법」, 「인터넷안전심사방법」 등에 근거하여 심사하게 될 것, 그리고 수사 중 신규 회원가입을 중단한다고 했다(国家网络安全审查办公室 21/07/05). 원만만과 휘처방은 화물운송, 교통 등 분야의 플랫폼 기업이고 보스는 구인구직 플랫폼이다. 앞의 두 기업은 디디추싱과 마찬가지로 도로, 교통, 물류 등과 관련된 데이터를 보유한 것으로 보고 있고 보스는 구인 정보와 구직자의 데이터를 보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 V. 나가며

중국 정부의 플랫폼 기업에 대한 관리의 내용은 <표 2>와 같이 정리 및 요약할 수 있다.<sup>17</sup>

첫째, 플랫폼 기업은 독점 문제를 유발했고 시장관리당국이 중심이 되어 관리했다. 201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 플랫폼 기업은 기록적으로 성장했다. 대표적 기업인 알리바바와 텐센트는 중국 인구에 비견되는 규모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거대 플랫폼 기업은 하위 플랫폼을 통해 방대한 생태 체계를 구성했다.

표 2 플랫폼 기업에 대한 관리 내용

기업 유발 문제	관리 대상 문제	관리 주체	관리 방식
사용자 확보 경쟁, 사용자의 선택을 강요(중소 플랫폼의 성장 방해); 지역 경제(소상공인) 부정적 영향	시장 독점	시장관리당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무원반독점위원회, 국가세무총국, 중앙인터넷판공실 등)	제도에 근거: 「반독점법」 「플랫폼경제영역에서의 반독점지침」 등
기술기업의 금융 서비스(국유은행과 경쟁, 금융상품 판매)	금융 리스크	금융관리당국 (중국인민은행,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국가외환관리국, 국무원금융안정발전위원회 등)	제도에 근거: 「인터넷소액대출업무관리방법초안」  행정권력에 근거: 기업 상장 중단 기업 구조조정(재편)
데이터 관리(국내 수집 데이터)	데이터 안보	인터넷관리당국 (국가인터넷안전심사판공실,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등)	제도에 근거: 「국가안전법」, 「인터넷안전법」, 「인터넷안전심사방법」, 「자동차데이터안전관리규정초안」, 「스마트인터넷자동차생산기업및제품에대한지침초안」 등

<sup>17</sup> 2021년 현재, 알리바바와 텐센트는 중국정부가 추진하는 “공동부유” 사업에 동참하면서 기금 조성에 거액의 기부금을 납부하기로 했다.

생태 체계는 기존의 산업과 지역의 경계를 넘어선, 데이터에 기반한 온라인 상업 연결망이었다. 방대한 규모를 유지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플랫폼 기업들은 자신의 플랫폼을 매개한 사용자의 규모를 확대해야 했다. 하지만 제한된 시장에서의 고객 확보 경쟁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그리고 플랫폼 기업과 지역상권(자영업) 사이의 독점 문제를 유발했다. 이 문제에 대해 시장관리당국, 구체적으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무원반독점위원회, 중앙인터넷정보판공실, 국가세무총국 등이 관리자로 역할했다. 시장관리당국의 관리는 「반독점법」과 그 틀 내에서 제정한 반독점 지침에 근거했다.

둘째, 플랫폼 기업은 금융시장의 리스크를 유발했고 금융관리당국이 중심이 되어 관리했다. 플랫폼 기업들 중 금융 관련 이슈를 만든 기업은 알리바바였다. 알리바바는 기존 제도권 금융기관, 즉 국유은행이 진출하지 않은 분야에 진출하여 금융상품을 판매했다. 플랫폼 기업은 자신의 정체성을 상황적으로 기술기업과 금융기업 사이에서 변용하고 있었다. 금융시장이 국유은행 중심으로 구성된 질서라는 점을 잘 알고 있기에 플랫폼 기업은 자신을 기술기업이라고 하면서 금융상품을 판매했다. 금융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국가의 관리가 시작되자 플랫폼 기업은 이러한 관리가 낙후된 제도에 근거한다고 비판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플랫폼 기업의 언행을 정치적인 것으로 받아들였다. 중국인민은행,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국가외환관리국, 국무원금융안정발전위원회 등 금융 당국이 동시적으로 플랫폼 기업의 금융 서비스를 관리했다. 금융당국은 기존 금융상품 중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중단 및 취소시켰고 그동안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고 판단한 기업에 대해서는 관리가 용이하게 구조조정했다. 자료의 한계일 수도 있겠지만 이 과정에 특이점이라면, 인터넷 소액대출과 관련된 신규 정책을 제정하는 등 관계 당국의 기능적 관리도 보였지만 정치적 및 행정적 권력을 이용하여 기업가를 소환하거나 기업에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거나 기업의 상장을 중단하는 등 권위주의적 방식도 부각되었다.

셋째, 플랫폼 기업은 데이터 안보 문제를 유발했고 인터넷관리당국이 중심이 되어 관리했다.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안보 문제는 교통 및 운송 관련 플랫폼 기업 디디추싱의 미국 상장(또는 진출) 과정에 발생했다. 플랫폼 기업이 수집

한 데이터에는 음성, 안면, 지문, 혈액형, 행적 등을 포함한 다양한 개인 정보는 물론 정부, 정당, 기업과 관련된 정보도 있다. 데이터는 인공지능이나 알고리즘의 개발에 핵심 자원이고 국가 안보와 관련되는 자원으로 간주되었다. 국가 인터넷안전심사판공실의 관리는 「국가안전법」, 「인터넷안전법」, 「인터넷안전심사방법」 등의 안보와 관련된 법과 정책에 근거,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자동차 수집 데이터에 대한 지침에 근거했다.<sup>18</sup>

투고일: 2021년 10월 4일 | 심사일: 2021년 11월 12일 | 게재확정일: 2021년 11월 30일

<sup>18</sup> ‘플랫폼 사회’는 중국만의 특수한 현상이 아니다. 이미 세계 주요 국가와 지역에서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에 의해 생산자, 판매자, 소비자, 노동자의 관계가 전통적인 물리적 공간을 통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재편되었다. 플랫폼은 사람의 일상을 큰 격변없이 변화시켰고 나아가 개인의 일상을 재구성하기도 했다(Dijck et al., 2018). 이러한 ‘플랫폼 사회’에서의 쟁점은 온라인 플랫폼(기업)과 공공의 영역(또는 가치) 사이의 관계에 관한 것이었다. ‘플랫폼 사회’ 개념이 서구를 배경으로 출현한 것이기에 이 쟁점은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체제 또는 제도에 기반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치적 권위주의 하에서의 경제적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체제에서 ‘플랫폼 사회’는 어떤 쟁점이 있을까? 중국 내에서 정부와 기업은 데이터를 생산수단으로 보기 시작했다. 만약 이럴 경우, 기존의 마르크스주의와 공산당의 국가 거버넌스의 방법과 이론으로 설명이 안되는 부분이 발생한다. 중국은 생산수단으로서 토지의 ‘소유’ 문제를 사회주의 시기 토지 개혁을 통해, 개혁개방 시기 ‘점유’라는 새로운 개념과 방법을 통해 접근 및 해결했다. 하지만 생산수단으로서 데이터의 ‘소유’ 문제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나아가 ‘소외’는 어떤 방식으로 출현할 것인가? 정부, 기업, 그리고 개인(또는 인구 집단) 사이 데이터의 소유를 둘러싼 다양한 이슈가 이미 출현했고, 본 연구자는 이 글에서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작금의 국가-플랫폼 기업의 관계가 생산수단으로서 데이터의 소유(또는 소유권)를 둘러싼 경쟁 또는 각축의 한 측면이 아닐까 생각한다. 또 다른 쟁점은 비교의 관점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주지하다시피 이미 미국과 유럽연합은 플랫폼 기업들의 독점적 지위를 문제라고 보고 있고 반독점 관련 제도화를 추진 중에 있다. 이런 맥락에서 비교사회학적 시각에서 중국의 국가-플랫폼 기업 관계가 북미나 유럽의 그것에 비해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쟁점과 사회학적 연구 대상이 있지만 이 부분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정교한 이론과 풍부한 자료가 있어야하기에 본 연구는 제목에서 밝혔듯이 중국 사례에 한정된 탐색적 연구에 그쳤다. 본 연구에서 밝히지 못한 부분은 후속 연구를 통해 규명해 보고자 한다.



## 참고문헌

- 노은영·국정훈. 2021. “중국의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규제 연구: 개인정보보호를 중심으로.” 『한중법학회』 45호, 363-398.
- 다나카 미치아키 저. 정승욱 역. 2019. 『미중 플랫폼 전쟁: AI시대 메가테크 기업, 최후 승자는?』. 세종.
- 클라크, 던컨 저. 이영래 역. 2018. 『알리바바: 영국인 투자금융가가 만난 마윈, 중국, 그리고 미래』. 지식의 날개.
- 윤재웅. 2020. 『차이나 플랫폼이 온다: 디지털 패권전쟁의 서막』. 미래의창.
- 이재열 외. 2021. 『플랫폼 사회가 온다』. 한울아카데미.
- 최필수·이희옥·이현태. 2020. “데이터 플랫폼에서의 중국의 경쟁력과 미중갈등.” 『중국과 중국학』 39호, 55-87.
- 한국사회학회. 2021. “플랫폼 사회의 거시적 미시적 다이내믹스.” <https://www.youtube.com/channel/UCUnsUR2Adf1ETj4C2d72qkg/videos>(검색일: 2021. 11. 16.).
- Dijck, Jose Van, Thomas Poell, and Martijn de Waal. 2018. *The Platform Society: Public Values in a Connective Worl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Fung Business Intelligence*. 2020. “Business Model Innovation: Overview of the Innovative B2C Business Models in China.” <https://www.fbcgroup.com/?q=reports&page=2>(검색일: 2021. 5. 18.).
- Kloet, Jeroen de, Thomas Poell, Zeng Guohua, and Chow Yiu Fai. 2019. “The Platformization of Chinese Society: Infrastructure, Governance, and Practice.” *Chinese Journal of Communication* 12(3), 249-256.
- The Economist*. 2018. “Alibaba and Tencent Have Become China’s Most Formidable Investors.” <https://www.economist.com/business/2018/08/02/alibaba-and-tencent-have-become-chinas-most-formidable-investors>(검색일: 2021. 6. 22.).
- Yang, Jing and Lingling Wei. 2020. “China’s President Xi Jinping Personally Scuttled Jack Ma’s Ant IPO.” *The Wall Street Journal* 2020. 11. 12. <https://www.wsj.com/articles/china-president-xi-jinping-halted-jack-ma-ant-ipo-11605203556>(검색일: 2021. 6. 26.).
- Yoon, Saemoon. 2021. “The 3 Pillars of China’s Booming Start-up Ecosystem.” *World Economic Forum*. [https://www.weforum.org/agenda/2021/06/china-booming-startup-ecosystem?utm\\_source=facebook&utm\\_](https://www.weforum.org/agenda/2021/06/china-booming-startup-ecosystem?utm_source=facebook&utm_)

medium=social\_scheduler&utm\_term=Innovation&utm\_content=21/06/2021+13:00&fbclid=IwAR37WaAad1OGTJZPJLK9OhiPSKP5P-9hIkCKYPxgYzeUIIhIrkG3\_8nbUaY(검색일: 2021. 6. 22.).

- BBCNEWS中文. 2019. “阿里巴巴交班:马云的政治困境与制度‘遗产’.”(9월 9일) <https://www.bbc.com/zhongwen/simp/chinese-news-49634634>(검색일: 2021. 5. 13.).
- \_\_\_\_\_. 2020. “蚂蚁上市:定价出炉或成史上最大IPO,中美交恶凸显中企出海风险.”(10월 29일) <https://www.bbc.com/zhongwen/simp/business-54704145>(검색일: 2021. 5. 13.).
- \_\_\_\_\_. 2020. “蚂蚁上市:中国式金融科技公司的雄心和险途.”(8월 31일) <https://www.bbc.com/zhongwen/simp/business-53944354>(검색일: 2021. 5. 13.).
- \_\_\_\_\_. 2020. “蚂蚁上市暂缓:监管新规定或为IPO增加变数,致估值缩水.”(11월 4일) <https://www.bbc.com/zhongwen/simp/chinese-news-54806295>(검색일: 2021. 5. 14.).
- \_\_\_\_\_. 2020. “蚂蚁集团上市前夕马云被集体‘约谈’,引发广泛猜测.”(11월 3일) <https://www.bbc.com/zhongwen/simp/business-54790912>(검색일: 2021. 5. 14.).
- \_\_\_\_\_. 2020. “双十一的冰火两重天:阿里巴巴交易额狂刷纪录,监管趋紧股价暴跌.”(11월 12일) <https://www.bbc.com/zhongwen/simp/business-54914808>(검색일: 2021. 5. 4.).
- \_\_\_\_\_. 2020. “阿里巴巴因涉嫌垄断再遭监管部门立案调查.”(12월 24일) <https://www.bbc.com/zhongwen/simp/business-55435186>(검색일: 2021. 5. 3.).
- \_\_\_\_\_. 2020. “中国管控互联网巨头,反平台经济垄断的三大看点.”(11월 11일) <https://www.bbc.com/zhongwen/simp/chinese-news-54902498>(검색일: 2021. 5. 4.).
- \_\_\_\_\_. 2020. “中国反垄断:互联网巨头疾速扩张招致密集打击.”(12월 29일) <https://www.bbc.com/zhongwen/simp/business-55476378>(검색일: 2021. 5. 4.).
- \_\_\_\_\_. 2021. “中国出台反垄断指南,驯服巨头的缰绳被指有所放松.”(2월 10일) <https://www.bbc.com/zhongwen/simp/business-56006633>(검색일: 2021. 5. 27.).
- Driebusch, Corrie. 2021. “中国网约车巨头滴滴申请在美国上市.” 『华尔街日报』 <https://cn.wsj.com/articles/%E4%B8%AD%E5%9B%BD%E7%BD%91%E7%BA%A6%E8%BD%A6%E5%B7%A8%E5%A4%B4%E6%BB%B4%E6%BB%B4%E5%87%BA%E8%A1%8C%E7%94%B3%E8%AF%B7%E5%9C%A8%E7%BE%8E-E5%9B%BD%E4%B8%8A%E5%B8%82-11623368410>(검색일: 2021. 7. 6.).

- Wei Lingling and Zhai Keith. 2021. “中国监管部门曾表示希望滴滴推迟美国IPO.” 『华尔街日报』 <https://cn.wsj.com/articles/%E4%B8%AD%E5%9B%BD%E7%9B%91%E7%AE%A1%E9%83%A8%E9%97%A8%E6%9B%BE%E8%A1%A8%E7%A4%BA%E5%B8%8C%E6%9C%9B%E6%BB%B4%E6%BB%B4%E6%8E%A8%E8%BF%9F%E7%BE%8E%E5%9B%BDipo-11625535614>(검색일: 2021. 7. 7.).
- 简夏泽. 2021. “滴滴下架,美国律所正式对滴滴发起集体诉讼.” 『多维新闻』 <https://www.dwnews.com/%E5%85%A8%E7%90%83/60249709/%E6%BB%B4%E6%BB%B4%E4%B8%8B%E6%9E%B6%E7%BE%8E%E5%9B%BD%E5%BE%8B%E6%89%80%E6%AD%A3%E5%BC%8F%E5%AF%B9%E6%BB%B4%E6%BB%B4%E5%8F%91%E8%B5%B7%E9%9B%86%E4%BD%93%E8%AF%89%E8%AE%BC>(검색일: 2021. 7. 7.).
- 高科技网. 2018. “马云:AI应翻译为机器智能,人类把自己看太大了.” <https://www.gkjnet.com/rgzn/2018/0917/503.html>(검색일: 2021. 5. 17.).
- 工业和信息化部装备工业一司. 2021. “公开征求对‘智能网联汽车生产企业及产品准入管理指南(试行)(征求意见稿)的意见.’(4월 7일) [https://www.miit.gov.cn/jgsj/zbys/qcgy/art/2021/art\\_67412baef004441a9cafe0a440a928a2.html](https://www.miit.gov.cn/jgsj/zbys/qcgy/art/2021/art_67412baef004441a9cafe0a440a928a2.html)(검색일: 2021. 7. 8.).
- 国家网络安全审查办公室. 2021. “网络安全审查办公室关于对‘运满满’‘货车帮’BOSS直聘’启动网络安全审查的公告.”(7월 5일) [http://www.cac.gov.cn/2021-07/05/c\\_1627071328950274.htm](http://www.cac.gov.cn/2021-07/05/c_1627071328950274.htm)(검색일: 2021. 7. 5.).
- \_\_\_\_\_. 2021. “网络安全审查办公室关于对‘滴滴出行’启动网络安全审查的公告.”(7월 2일) [http://www.cac.gov.cn/2021-07/02/c\\_1626811521011934.htm](http://www.cac.gov.cn/2021-07/02/c_1626811521011934.htm)(검색일: 2021. 7. 6.).
- 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 2020. “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关于‘关于平台经济领域的反垄断指南(征求意见稿)’公开征求意见的公告.”(11월 11일) [http://www.samr.gov.cn/hd/zjdc/202011/t20201109\\_323234.html](http://www.samr.gov.cn/hd/zjdc/202011/t20201109_323234.html)(검색일: 2021. 5. 4.).
- \_\_\_\_\_. 2020. “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依法对阿里巴巴集团涉嫌垄断行为立案调查.”(12월 24일) [http://www.samr.gov.cn/xw/zj/202012/t20201224\\_324638.html](http://www.samr.gov.cn/xw/zj/202012/t20201224_324638.html)(검색일: 2020. 5. 27.).
- \_\_\_\_\_. 2020. “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依法对阿里巴巴投资收购银泰商业股权,阅文集团收购新丽传媒股权,丰巢网络收购中邮智递股权等三起未依法申报违法实施经营者集中案作出行政处罚决定.”(12월 14일) <http://www.samr.gov.cn/xw/>

- zj/202012/t20201214\_324335.html(검색일: 2020. 5. 27.).
- \_\_\_\_\_. 2020. “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依法对互联网领域十起违法实施经营者集中案作出行政处罚决定.”(3월 12일) [http://www.samr.gov.cn/xw/zj/202103/t20210312\\_326737.html](http://www.samr.gov.cn/xw/zj/202103/t20210312_326737.html)(검색일: 2021. 5. 27.).
- \_\_\_\_\_. 2021. “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依法对美团涉嫌垄断行为立案调查.”(4월 26일) [http://www.samr.gov.cn/xw/zj/202104/t20210426\\_328234.html](http://www.samr.gov.cn/xw/zj/202104/t20210426_328234.html)(검색일: 2021. 5. 27.).
- \_\_\_\_\_. 2021. “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依法对阿里巴巴集团控股有限公司在中国境内网络零售平台服务市场实施‘二选一’垄断行为作出行政处罚.”(4월 10일) [http://www.samr.gov.cn/xw/zj/202104/t20210410\\_327702.html](http://www.samr.gov.cn/xw/zj/202104/t20210410_327702.html)(검색일: 2021. 5. 27.).
- \_\_\_\_\_. 2021. “一图读懂: 促进平台经济规范有序创新健康发展-‘国务院反垄断委员会关于平台经济领域的反垄断指南’解读.”(2월 8일) [http://gkml.samr.gov.cn/nsjg/xwxc/202102/t20210208\\_325999.html](http://gkml.samr.gov.cn/nsjg/xwxc/202102/t20210208_325999.html)(검색일: 2021. 5. 27.).
- \_\_\_\_\_. 2021. “互联网平台企业向社会公开‘依法合规经营承诺(第一批).”(4월 14일) [http://www.cac.gov.cn/2021-04/16/c\\_1620152752013857.htm](http://www.cac.gov.cn/2021-04/16/c_1620152752013857.htm)(검색일: 2021. 4. 20.).
- \_\_\_\_\_. 2021. “互联网平台企业向社会公开‘依法合规经营承诺’(第二批).”(4월 15일) [http://www.cac.gov.cn/2021-04/16/c\\_1620179180102903.htm](http://www.cac.gov.cn/2021-04/16/c_1620179180102903.htm)(검색일: 2021. 4. 20.).
- \_\_\_\_\_. 2021. “互联网平台企业向社会公开‘依法合规经营承诺’(第三批).”(4월 16일) [http://www.cac.gov.cn/2021-04/16/c\\_1620179540250633.htm](http://www.cac.gov.cn/2021-04/16/c_1620179540250633.htm)(검색일: 2021. 4. 20.).
- 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中央网信办·国家税务总局. 2021. “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中央网信办·国家税务总局联合召开互联网平台企业行政指导会.”(4월 13일) [http://www.cac.gov.cn/2021-04/13/c\\_1619894556494868.htm](http://www.cac.gov.cn/2021-04/13/c_1619894556494868.htm)(검색일: 2021. 4. 14.).
- 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 2021. “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关于‘汽车数据安全’管理若干规定(征求意见稿)‘公开征求意见的通知.’”(5월 12일) [http://www.gov.cn/xinwen/2021-05/12/content\\_5606075.htm](http://www.gov.cn/xinwen/2021-05/12/content_5606075.htm)(검색일: 2021. 7. 8.).
- \_\_\_\_\_. 2021. “关于下架‘滴滴出行’App的通报.”(7월 4일) [http://www.cac.gov.cn/2021-07/04/c\\_1627016782176163.htm](http://www.cac.gov.cn/2021-07/04/c_1627016782176163.htm)(검색일: 2021. 7. 6.).
- 国务院国有资产监督管理委员会. <http://www.sasac.gov.cn/n16582853/n16582888/>

index.html(검색일: 2021. 5. 29.)

国务院反垄断委员会. 2021. “国务院反垄断委员会关于平台经济领域的反垄断指南.”(2월 7일) [http://gkml.samr.gov.cn/nsjg/fldj/202102/t20210207\\_325967.html](http://gkml.samr.gov.cn/nsjg/fldj/202102/t20210207_325967.html)(검색일: 2021. 5. 27.).

金杜律师事务所. 2020. 『见证2020, 开启中国反垄断新浪潮-中国反垄断法年度回顾』.

大家说. 2020. “王岐山在第二届外滩金融峰会上的讲话:坚持防范化解金融风险,安全性永远在第一位.” [https://www.youtube.com/watch?v=R\\_xrsY88Enc](https://www.youtube.com/watch?v=R_xrsY88Enc)(검색일: 2021. 6. 1.).

大佬时光. 2020. “马云:今天的世界,迫切期待一个真正为未来而思考的,全新的金融体系(马云外滩金融峰会演讲完整版).” <https://www.youtube.com/watch?v=6RLRcN2aJAo>(검색일: 2021. 6. 1.).

腾讯. <https://www.tencent.com/zh-cn/investors/financial-news.html>(검색일: 2021. 5. 29.)

路透社. 2021. “独家:腾讯老板马化腾本月会晤了中国反垄断官员-消息人士.”(3월 24일) <https://www.reuters.com/article/exclusive-tencent-ma-0324-wedn-idCNKBS2BG0CI>(검색일: 2021. 5. 27.).

\_\_\_\_\_. 2021. “蚂蚁消金将承接花呗借呗业务监管要求两家小贷公司一年内退出.”(6월 3일) <https://cn.reuters.com/article/ant-group-loan-business-regs-0603-idCNKCS2DF0WD>(검색일: 2021. 7. 8.).

\_\_\_\_\_. 2021. “中国滴滴在美国首日交易结束后估值达680亿美元.”(7월 1일) <https://www.reuters.com/article/china-didi-usa-valuations-0630-wedn-idCNKCS2E72Z2>(검색일: 2021. 7. 6.).

\_\_\_\_\_. 2021. “中国滴滴出行公布美国上市申请,有望成为今年全球最大IPO.”(6월 11일) <https://www.reuters.com/article/%E4%B8%AD%E5%9B%BD%E6%BB%B4%E6%BB%B4%E5%87%BA%E8%A1%8C%E5%85%AC%E5%B8%83%E7%BE%8E%E5%9B%BD%E4%B8%8A%E5%B8%82%E7%94%B3%E8%AF%B7%EF%BC%8C%E6%9C%89%E6%9C%9B%E6%88%90%E4%B8%BA%E4%BB%8A%E5%B9%B4%E5%85%A8%E7%90%83%E6%9C%80%E5%A4%A7IPO-idCNL3S2NS4K4>(검색일: 2021. 7. 6.).

\_\_\_\_\_. 2021. “特斯拉称已在中国建立数据中心并将陆续增加销售数据将存储在境内.”(5월 26일) <https://cn.reuters.com/article/tesla-china-data-center-0525-tues-idCNKCS2D701T>(검색일: 2021. 7. 8.).

- 潘福达. 2020. “互联网存款被监管部门亮‘红灯’:配合监管,蚂蚁下架互联网存款产品.”  
<http://finance.people.com.cn/n1/2020/1219/c1004-31972047.html>(검색일: 2021. 7. 8.).
- 小山. 2021. “滴滴案闹大,官媒指7.1敏感日子前上市美国先斩后奏高层震怒再震怒.”  
<https://www.rfi.fr/cn/%E4%B8%AD%E5%9B%BD/20210705-%E6%BB%B4%E6%BB%B4%E6%A1%88%E9%97%B9%E5%A4%A7-%E5%AE%98%E5%AA%92%E6%8C%87%E4%B8%8A%E5%B8%82%E7%BE%8E%E5%9B%BD%E5%8-5%88%E6%96%A9%E5%90%8E%E5%A5%8F%E9%AB%98%E5%B1%82%E9%9C%87%E6%80%92%E5%86%8D%E9%9C%87%E6%80%92>(검색일: 2021. 7. 7.).
- 新浪科技. 2021. “滴滴大数据揭秘:高温天部委加班大比拼.”(7월 5일) <https://finance.sina.com.cn/tech/2021-07-05/doc-ikqciyzk3623623.shtml>(검색일: 2021. 7. 6.).
- 阿里巴巴. <https://www.alibabagroup.com/cn/ir/earnings>(검색일: 2021. 5. 29.).
- 亿欧·张书乐. 2017. “BATJ与国有银行联姻,会为金融领域带来什么?” <https://www.chinaventure.com.cn/cmsmodel/news/detail/319828.html>(검색일: 2021. 5. 17.).
- 张非鱼. 2020. “关于金融创新与监管的几点认识”(10월 31일) [https://www.financialnews.com.cn/hg/202010/t20201031\\_204309.html](https://www.financialnews.com.cn/hg/202010/t20201031_204309.html)(검색일: 2021. 6. 1.).
- 滴滴出行官方微博. 2021.(7월 3일) [https://weibo.com/diditaxi?is\\_all=1#\\_loginLayer\\_1625578580535](https://weibo.com/diditaxi?is_all=1#_loginLayer_1625578580535)(검색일: 2021. 7. 6.).
- \_\_\_\_\_. 2021.(7월 4일) [https://weibo.com/diditaxi?is\\_all=1#\\_loginLayer\\_1625578580535](https://weibo.com/diditaxi?is_all=1#_loginLayer_1625578580535)(검색일: 2021. 7. 6.).
- 早报. 2020. “官媒连发三文批蚂蚁,网民调侃马云‘不得不服’”(11월 3일) <https://www.zaobao.com.sg/realtime/china/story20201103-1097970>(검색일: 2021. 11. 15.).
- 重庆银保监局. 2021. “重庆银保监局关于重庆蚂蚁消费金融有限公司开业的批复.”(6월 3일) <http://www.cbirc.gov.cn/branch/chongqing/view/pages/common/ItemDetail.html?docId=987949&itemId=1986>(검색일: 2021. 7. 8.).
- 中国银保监会·中国人民银行. 2020. “‘网络小额贷款业务管理暂行办法(征求意见稿)’公开征求意见的公告.” [http://www.gov.cn/xinwen/2020-11/03/content\\_5556884.htm](http://www.gov.cn/xinwen/2020-11/03/content_5556884.htm)(검색일: 2021. 5. 26.).
- 中国人民银行. 2021. “中国人民银行副行长潘功胜就金融管理部门再次约谈蚂蚁集团情况答记者问.”(4월 12일) <http://m.safe.gov.cn/safe/2021/0412/18726.html>(검색일: 2021. 7. 8.).

珍妮. 2020. “某女士深度解读蚂蚁金服背后秘密:马云外滩金融峰会[炮轰三连],中国人民银行 银保监会,证监会,国家外汇管理局.” <https://www.youtube.com/watch?v=7Lyyx9NP6dM>(검색일: 2021. 6. 23.).

特伦哥. 2020. “蚂蚁金服IPO失败的原因.” <https://www.facebook.com/watch/?v=1017006362151014>(검색일: 2021. 6. 22.).

互金商业评论. 2018. “马云未能改变的银行,金融科技会做到吗?” <https://www.twoeggz.com/news/10879901.html>(검색일: 2021. 5. 17.).

---

Abstract

## An Exploratory Study on China's Digital Platform Companies and State Governance

Woo Park Hansung University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s platform companies and state governance. The study analyzes what issues were inherent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platform companies, and how the Chinese government managed these problem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platform companies competed for user acquisition in the name of continuous development, and this competition caused monopoly issues. Second, the platform companies who sold financial products, were seen as disturbing or challenging the existing financial system centered on state-owned banks. Third, the data collected by platform companies was recognized as a matter of national security. These issues were managed through legal and policy institutionalization by the Chinese government's market, financial, internet, and security authorities. Fourth, the Chinese government utilized authoritarian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power in the process of governance.

**Keywords** | China's Platform Company, Governance, Anti-Monopoly, Financial Service, Data Security